고향 생각 설연휴 열차표 예매가 시작된 11일 오전 시민들이 광주 송정역에서 승차권을 예매하려고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잔여 좌석 승차권은 11일 오후 4시 역 창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판매한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병력 확인도 않고…허술한 택시면허 발급

광주 30대, 뇌질환 숨기고 택시회사 취업 사망사고 내

병력 서류 제출 의무 사항서 제외…적성검사도 무용지물

폐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하고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려가 9중 충돌을 일으킨 택시운전기사가 뇌질환 환자로 조사되면서 택시운전자격 취득에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뇌전증 등 뇌질환자는 운전면허시험 응시는 물론 택시운전자격 취득이 제한되는데도 응시자가 밝히지 않으면 관계기관이 파악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나면 서다.

운전면허 및 택시운전자격 취득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은 뇌질환자의 경우 택시회사 취업 과정에서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해 취업제한할 수 있는데도 광주시와 광주택시운송사업자조합, 택시회사 측은 의무사항이 아니다며 손 놓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서부경찰은 지난 10일 도로 가장자리를 걷던 폐지 수집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택시운전기사 전모(32)씨의 진료기록을 살펴본 결과 뇌질환 환자로 파악됐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다만, 사고 당시 전씨의 주장대로 그가 의식을 잃었는지 여부는 추후 조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10여년 전 사고를 당해 뇌출혈로 수술을 받았다.

지난 2015년 2월에도 차량 단독사고를 일으켜 병원 치료를 받았고 이때부터 증세가 심해져 이전에는 간헐적으로 복용한 약물을 매일 복용해 왔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이후 전씨의 진료 일지 등에 뇌질환(경기)으로 표기가 된 만큼 경찰은 전씨가 운전면허 갱신 및 택시운전자격 취득과 취업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씨는 앞서 지난 2014년 11월 운전면허(2종 보통)를 취득했다. 2015년 4월에는 1종 대형면허로 갱신했고 2016년 12월 광주의 한 택시회사에 취업했다.

적어도 2015년 2월 사고 이후에는 면허 갱신이나 택시운전자격 취득이 불가능한 병력을 보유했다는 게 경찰 판단이어서 전씨의 경우 면허를 갱신 과정은 물론 택시운전자격 취득 및 취업 과정에서 면밀한 병력 조회가 이뤄졌다면 운전대를 아예 잡을 수 없는 인물이라는 것이다.

현행 운전면허시험의 경우 시력·청력 등 간단한 신체검사만 했을 뿐 면허 결격사유인 뇌전증에 대한 진단은 이뤄지지 않고, 택시자격 취득시 진행되는 운전 정밀 적성검사 역시 이를 걸러낼 수 없다. 결과적으로 거짓말로 '판명'났지만, 17명의 사상자를 부른 '뇌질환 환자 해운대 질주사고' 이후 관련법 개정 논의만 있을 뿐 제도 개선은 이뤄지지 않았다.

광주시와 광주택시조합에 따르면, 택시회사 취업 과정에서도 운전자 병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출이 의무 사항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광주 아파트 경비 30% "부당대우 받았다"

광주지역 아파트 경비노동자 10명 중 3명은 입주민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광주시비정규직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두 달간 광주지역 아파트 경비노동자 212명을 대상으로 노동조건과 인권현황에 관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0%가 '입주민에게 갑질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입주민과 갈등으로 불면증이나 수면장애 등 심리적인 압박과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비율도 30%를 웃돌았다.

'휴식시간에 근무지를 벗어날 수 없다'는 응답도 66.4%로, 대다수 경비노동자들은 사실상 휴식시간 없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비노동자들의 평균임금은 월 141만1070원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300세대 미만 아파트에서 일하는 경비노동자 경우 한 달에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70~90만원을 받고 일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경비노동자 연령은 60~69세 128명, 70세 이상 69명 등으로, 대부분 60세 이상 고령자였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대학 총장 임명 국가 개입 조사하라"

광주교대 등 전국 21개대 총학 기자회견

서울대와 전남대, 광주교대 등 8개 국·공립대 및 13개 교육대학 총학생회는 1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공립대 총장 임명과 관련,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진실을 밝히고 특검이 명명백백하게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광주교대 등에서는 대학이 총장 후보를 추천했는데도 교육부가 임용 제청을 하지 않으면서 총장 공석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순천대 등은 1순위 후보자 대신, 2순위 후보자가 총장으로 임용되면서 학내 반발을 불러왔다.

국공립대 총학생회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대체 이 나라의 어디까지 개입한 것인가'라고 물으며 "교육 공공성의 보루인 국공립대 총장 임용과정에까지 정권의 잣대로 개입해왔다는 사실이 놀라울 뿐"이라고 비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뜸 07:41 해짐 17:41 달뜸 17:38 달짐 07:01

찬바람 쌩쌩

구름이 많고 바람이 강하게 불겠다.

◇ 지역별 날씨 (℃)

광 주	구름많음	0/8	보 성	구름많음	-3/7
목 포	구름많음	1/8	순 천	구름많음	-1/8
여 수	구름많음	1/8	영 광	구름많음	-1/7
나 주	구름많음	-2/8	진 도	구름많음	4/8
완 도	구름많음	1/8	전 주	구름많음	-2/6
구 례	구름많음	-3/6	군 산	구름많음	-1/6
강 진	구름많음	-2/8	남 원	구름많음	-4/6
해 남	구름많음	-1/8	흑산도	구름많음	4/8
장 성	구름많음	-2/7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남부	앞바다	서~북서	0.5~1.5	서~북서	0.5~1.5
	먼바다	서~북서	1.0~2.5	서~북서	1.0~2.5
남해서부	앞바다	서~북서	0.5~1.0	서~북서	0.5~1.0
	먼바다(동)	서~북서	0.5~1.5	서~북서	1.0~2.0
	먼바다(서)	서~북서	1.0~1.5	서~북서	1.0~2.0

◇ 물때

	간조	만조
목포	06:55	01:28
	19:36	14:18
여수	02:39	09:10
	15:13	21:19

◇ 생활지수

뇌졸중	높음
감기	보통
체감온도	관심

◇ 주간 날씨

13(금)	14(토)	15(일)	16(월)	17(화)	18(수)	19(목)
-3/6	-3/2	-4/3	-3/5	-3/6	-3/7	2/7

매서운 冬장군…다음주까지 영하권

노약자 건강·수도 동파 주의

매서운 한파가 찾아왔다. 11일 광주·전남지역 최저기온이 영하 5도로 뚝 떨어지고 바람도 강해 올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였다. 이번 추위는 다음주까지 계속될 것으로 관측됐다.

이날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시베리아에서 발생한 영하 40~50도의 북동쪽 고기압이 한반도로 밀려오면서 한파가 시작됐다. 그동안은 동아시아 중남부에 형성된 기압능이 시베리아 고기압의 남하를 막아 올 겨울 한반도는 유난히 따뜻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안전처는 한파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기온이 떨어진데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노약자나 어린이는 가급적 외출을 삼가 줄 것을 당부했다. 만약 외출때는 체온 유지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농작물은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면 저온 피해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밭 주변에 비닐과 짚, 섬피 등을 미리 준비해 한파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의를 촉구했다.

수도관 동파도 우려된다. 동파 예방을 위해서는 수도꼭지를 약간 풀어 물이 조금씩 흐르게 하고, 이 물을 받아서 사용할 것을 권장했다.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민주열사' 박종철 30주기 추모행사 다채

1987년 6월 항쟁의 기폭제가 됐던 '고문치사' 사건의 주인공 고 박종철 열사의 30주기를 기리는 추모행사가 서울과 부산 등지에서 열린다.

민주열사박종철기념사업회는 오는 14일 박 열사의 30번째 기일을 맞아 오전 10시30분 경기도 남양주시 마석모란공원 묘역 참배를 시작으로 추모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오후 2시에는 서울 용산구 옛 남영동 대공분실 자리를 찾아 '민주열사 박종철 30주기 추모제'를 진행한다. 추모행사는 박 열사의 고향인 부산에서도 열린다.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와 부산박종철기념사업회는 이날 오후 4시부터 부산 진구 소민아트센터에서 30주기 추모식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종철 열사는 22살이던 지난 1987년 1월 14일 경찰에 불법체포돼 서울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조사를 받다 숨졌다. 언론과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은 그가 잔인한 물고문과 전기고문을 받아 숨졌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연합뉴스

무안출발은 조이투어로~
비행기보다 오래 타는 버스는 이제 그만~!
이제부턴 무안에서 편안하게 떠나세요

여행길의 즐거운 동반자!!
광주광역시동구 금남로5가 151-1번지 1층
Tel.(062)234-3222 Fax.(062)234-3141
NAVER 조이투어 검색
2억 영업보증보험 가입업체
조이투어 JOY TOUR CO.,LTD
http//www.joytour.kr

대표이사 최금환

추천1. 무안→규슈/오사카 직항 전세기

규슈 출발일 : 12.16~2.26/3박4일
산악회를 위한 규슈올레길! 548,000~
기타큐슈 야마구치/미야지마 838,000~
기타큐슈 나가사키/우레시노 838,000~

오사카 출발일 : 1.30, 2.2/3박4일
오사카/나라/교토/고베 1,168,000~
오사카 유니버셜스튜디오/교토/나라 1,168,000~
오사카/교토/와카야마/시라하마 1,298,000~

오사카 설연휴 : 1.27/3박4일
오사카 유니버셜스튜디오/교토/나라 1,388,000~
오사카/교토/와카야마/시라하마 1,458,000~

추천2. 무안→라오스 직항 전세기
뉴욕타임즈가 선정한 가장 가고싶은 곳 1위!!
★초특가 12/28, 1/9★
[육로]비엔티엔/방비엥/루앙프라방 949,000~
출발일 : 2016.12.28~2017.1.21/3박5일
[항공]비엔티엔/루앙프라방 1,498,000~
[항공]비엔티엔/방비엥/루앙프라방 1,548,000~

추천3. 무안→다낭 직항 전세기
출발일 : 2016.12.30~2017.2.24/3박5일
[관광]다낭/호이안/후에 1,149,000~
[골프]다낭 골프 54홀 1,649,000~
※공통포함사항 : 왕복항공료, TAX, 전일정식사, 관광지입장료, 숙소, 여행자보험, 기사 및 가이드팁
※공통불포함사항 : 여권 및 개인비용(골프상품만 클럽 중식 불포함)

추천4. 무안→대만 직항 전세기
출발일 : 2016.12.7~2017.2.26/3박5일
[실속]타이페이/야류/화련/지우펀 699,000~
[품격]타이페이/야류/화련/지우펀 799,000~
[실속]타이중/야류/화련/지우펀 899,000~
[품격]타이중/야류/화련/지우펀 999,000~

<일본 전세기 특전>
스타플라이어항공 / 기종 : A320-200 / 좌석 : 150석
★한벌제품★ 한벌에비뉴 고급 여행가방 증정! (4인 가족 기준 1개 증정) ※실속 상품은 제외

★항공특가(항공권편도) 선착순 5명★
무안↔기타큐슈 : 편도 50,000원부터~
무안↔오사카 : 편도 98,000원부터~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철저히 준수합니다. 등록번호 제동다 2003-1호
◆교통편 : 항공 및 선박 전용버스/전지역 ◆상기 요금은 환율 및 항공요금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억원 영업보증보험 가입 / 여행공제 가입업체 ◆예약시 계약서(취소규정)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경비없음(단,기사/가이드봉사료,선택관광,각국 비자비용 별도) ◆최소 출발인원 : 상품에 따라 다름
●공통조건 여행 경비 1인 기준 여행자보험 가입(해외상품:1억원 국내상품 5천만원) 관광진흥계발기금 공항 및 부두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아름다운 여행이 시작되는곳 조이투어